



「안전점검 재도약을 위한 Kick off」 행사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9월 17일(금) 오후 3시 대전에서 「안전점검 재도약을 위한 Kick off」 행사를 열고, “전국의 중대형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고 점검보고서 고품질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과 안전점검 수행 기술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안전점검 재도약을 위한 Kick off」 행사는 지난 3월 22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화재안전점검업무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직원 간 소통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지원부서

소속 기술인력을 점검 현장으로 전환배치하고, 지난 7월부터는 건물 규모별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토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바 있다.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해외 재보험 가입 시 안전점검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성

화된 위험조사(Risk Survey)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손해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위험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물소유주 및 관계자에게 충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 직원들을 경력별로 세분화하여 온·오프라인의 전문교육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월 2회 이상의 자체교육과 관련 내용 공유를 위한 사내 온라인 게시판 활성화 등을 통해 직원 기술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용산주택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업무협약 체결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 9월 8일 한국화재보험협회 고영선 이사장과 소방방재청의 박연수 청장 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영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 18동 일대 주택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무료 설치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 앞서 용산구 주택가 골목에서 소방방재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일보사와 함께 「화재 없는 안전한 고향 만들기 캠페인 민·관 공동협력 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 캠페인」 및 화재예방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11월 8일 명동에서 개최한 “화재감지기 성금 모금”에도 참여하여 성금을 기탁하였다.



윤희상 방재시험연구원장, 국제방화조사관협회 한국지회 초대회장으로 선출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윤희상 원장이 8월 19일 협회 본사건물(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된 국제방화조사관협회 한국지회(이하 IAAI Korea)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어, 방재시험연구원 업무 외에도 향후 2년간 국내 방화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와 IAAI Korea는 향후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최신 정보 제공, 각종 세미나 개최, 공인화재조사관 자격(CFI) 및 화재조사종사자 자격(FIP) 관련 교육·시험·발급 등의 업무를 할 계획이다.